

미국 조리 유학생 만족도에 관한 연구 - 로드아일랜드 주를 중심으로 -

오 석 태[¶]

우송대학교 외식조리학과[¶]

Study the Satisfaction of the Korean Culinary Students in RI in the United States

Suk Tae Oh[¶]

Dept. of Culinary Arts, Woosong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atisfaction of the culinary students during their studies in Rhode Island State (RI) in the United States. This research will prepare and give guidance to those who wish to study abroad. For this research, interviews and surveys were conducted and along with total of 68 copies of questionnaire were collected from to the Korean culinary students in the RI from Sep. 2007 to Mar. 2008. The analysis of the data was based on a Likert scale. Findings showed that most students chose to study abroad in their major felt satisfied with their school facilities. The research also indicated that where few challenges, such as language barrier and cultural differences. The inconveniences were with language problems and progress gradually into cultural challenges. In this respect, culinary students need to have more linguistic preparation and as well as to learn the importance of multiculturalism and globalization. Successful study abroad requires both personal and academic preparation. Teacher and parents should give supports and provide the fundamental skills that the students need to have a productive experience.

Key words: culinary study abroad, study satisfaction, school facilities, culinary arts, inconvenience.

I. 서 론

최근 세계적인 경기 불황과 달러 강세, 미국 내 실업률 최악의 상태로 인해 미국에서 유학 중인 한국인 학생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는 조기 귀국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조사에서 미국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가운데 한국 유학생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최근 펴낸 2008

년 4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유학생·교환학생 정보시스템(SEVIS)에 등록된 한국 국적 유학생 수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1만 8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SEVIS가 자료를 처음 발표한 2004년 말의 7만 3,272명보다 50% 증가한 것이다. F-1(정규 교육·언어 연수 유학)이나 M-1(직업 교육 유학) 비자를 받은 미국 내 전체 외국인 유학생 72만 2,272명의 15% 수준이다. 한국에 이어 2위에 오른 인도 유학생 수는 10만 명이 안 된다(중앙일보 2009).

유학생들을 과정별로 보면 학사학위 과정이 21만 8,000명으로 가장 많고, 석사 과정 18만 6,000명, 박사 과정 11만 6,000명과 커뮤니티 칼리지 등 준학사 과정이 7만 7,000명으로 집계되었다. 전공별로는 비즈니스 경영분야가 15만 2,000명, 엔지니어링 10만 명, 기초 기술 분야 5만 8,000명, 컴퓨터 4만 6,500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상위 6개 주에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캘리포니아 1,285개 학교에 12만 3,000명, 뉴욕주 714개교에 9만 3,000명, 텍사스 566개교에 5만 6,000명이 공부하고 있다. 그리고 아이비리그가 몰려 있는 동부 매사추세츠 주에는 3만 8,000명의 유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adiokorea.com 2010).

이렇게 많은 우리나라 학생들이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 내부의 공교육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고, 교육 전반에 대한 개선 노력이 그다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 기인한다(Cho HY 2007). 유학 추이는 1998년 IMF로 인한 경제 난국과 환율 급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가, 1999년 다시 증가되기 시작했다. 특히, 2000년 정부가 조기 유학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그 수가 급증하였는데, 이러한 유학 증가 현상은 우리 교육제도의 문제점과 현실을 반영하고 있고, 이에 따른 문제점도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하고 있다(Han JS 등 2002).

청소년 유학은 사회적으로 부정적 시각도 있지만 유학을 떠나는 청소년 당사자들이 그 사회에 적응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성장 과정에서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사회의 언어, 문화, 교육, 인간관계에서 오는 불확실성과 불안에서 오는 압박이다(Gao G & Gudykunst W 1990). 이러한 환경에 노출된 청소년들은 외국 학교에 도착 후 불안감과 우울증, 외로움, 공포와 혼란으로부터 신체적 정서적 건강에 대한 위협에 처하게 된다(Lin & Yi 1997). 한편, 국내에서 유학생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현지에서 유학생들이 겪는 환경과 문화적 충격에 대해서는 냉소적

이거나 비판적인 측면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유학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거나 현지에서 유학을 포기하더라도 이들이 재적응하는데 필요한 교육적, 사회적 또는 심리적 문제에 대해서 외면되거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Lee HG·Nam HJ 2003; An BC 1996). 유학은 개인적으로는 넓은 경험을 축적하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매우 긍정적인 기회가 되고,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보다 나은 교육 환경에서 학습을 함으로써 자녀의 미래에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어 만족감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유학이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도 국가적으로나 가정, 그리고 개인적으로 심각하게 나타나게 된다. 첫째, 국가적인 문제점으로 볼 때 공교육이 교육 만족도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기 때문에 유학생이 증가할 경우 국내 공교육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공교육의 붕괴는 국내 교육에 대한 회의로 이어지면서 더 많은 유학 도피자를 양산할 수 있다(Son JJ 2005).

둘째, 가정적인 문제점을 볼 때 우선적으로 유학으로 인한 교육비의 증가를 들 수 있다. 국내 교육비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은 등록금과 생활비는 가정 경제를 위협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 또한, 유학 자녀를 돌보기 위한 부모들로 인해 흔히 말하는 ‘기러기 가족’들이 증가하게 되며, 이러한 현상은 경제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의 붕괴로 이어지기도 한다. 셋째, 유학생 개인의 문제는 가장 근본적이면서 가장 많은 변수들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우선적으로 초기 언어와 현지 적응이 원만하지 못한 학생들은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갖게 되고, 결국에는 문화적 충격과 언어적 소통 장애를 이겨내지 못하고 교육 일탈로 이어지게 된다. Cho HY(2007)의 연구에서는 유학생들의 교육 일탈의 문제가 중·소도시보다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더 많이 일어난다고 한다. 그 이유는 본 연구의 분석에서 나타난 유학하고 있는 대학의 주변 환경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렇다면 유학을 결정한 학생들 역시 현지에서 학업을 수행하는 것과 함께 현지 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언어 문제, 학비 및 기타 재정 문제, 사회적 적응 문제, 고국에 대한 향수, 개인으로서의 역할 갈등, 더 나아가서는 일상생활에서의 일과를 수행하는 것의 어려움에 이르기까지 미국 사회에 적응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다(Choi JY 1997; Mallinckrodt B & Leong FTL 1992).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학생들이 어려움을 감내해가면서 낯선 환경에서 학업을 하려는 것일까? 실제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가? 또는 유학하는 과정에서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을까?

본 연구는 미국 로드아일랜드 주에 있는 한국인 조리학과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유학을 선택하게 된 동기를 살펴보고, 현재 유학 생활에서 자신의 선택에 만족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또한, 자신이 선택한 대학에서 받고 있는 이론과 실기 교육의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이 외에도 유학 초기에 가장 어려운 점과 유학 생활이 정착된 다음에 어렵게 생각되는 점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가 조리 유학생들의 유학 동기에서부터 현재 문제점들을 살펴 유학생들을 보다 내부적인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학을 계획하거나 유학을 보내는 학부모 및 지도교수 입장에서 학생들에게 지도 방향으로 설정하는데 좋은 정보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II. 선행 연구 고찰

1. 유학생 문화 적응과 유학 동기

1) 문화 적응

문화 적응(acculturation)이란 같은 문화에 익숙해 있다가 새로운 환경에서 생존을 위한 본능적

인 반응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Kagan H & Cohen J(1990)에 의하면 문화에 적응하는 것은 문화를 변용하는 것, 다른 문화를 수용하는 것, 또는 타 문화에 동화되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용어들 간에 의미가 비슷하나, 용어에 대한 표준적인 정의는 아직 찾아 볼 수 없다. 다만 많은 학자들이 문화적 적응을 말하기를 개인이 경험해 온 지배적인 문화에서 정신 건강과 사회적 통합의 감정과 더불어 행동, 가치, 태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개인 자신이 근본적으로 속한 문화적 속성을 포기하고 편재 거주하는 지역의 지배적인 문화적 속성을 수용하고 채택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Fugita S & O'Brien D 1986; Montgomery G & Orozco S 1984; Kagan H & Cohen J 1990).

유학생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나라의 문화에 어떠한 방식이든 적응을 해야 하며, 적응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다양하다. 문화 적응에 대하여는 여러 선행 연구를 찾아 볼 수 있는데, 그 중 Locke D(1992)는 유학생들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을 4가지로 소개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 유학생 자신이 속했던 나라의 문화와 현재 유학 중인 문화 양쪽을 모두 잘 소화하고 이를 기능적으로 받아들이는 유형이다. 이를 'the bicultural individual; integration', 즉, 두 문화가 공존된 사람이라 한다. 두 번째로 자신의 문화적 속성을 유지하며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the traditional individual; separation'이다. 세 번째로 유형은 양쪽 문화에 대해 혼선으로 인해 양쪽 모두 받아 들이지 못하는 한계선상에 있는 유형을 'the marginal individual; marginalization'이라 한다. 마지막으로 자기문화를 포기하고 현재 문화에 적응, 또는 수용한 유형으로 'the acculturated individual; assimilation'이다.

이렇게 문화적 적응을 살펴보는 이유는 문화적 적응 과정에서 겪은 심리적인 변화와 함께 인적 또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외국 유학생들이나 이민자들의 선행 연구에 의하면, 이

들의 문화적 적응 과정은 인구 사회학적 특성, 인성, 경험한 문제들의 강도와 횟수와 함께 거주하는 나라에 도착하기 전부터 도착한 후까지 자기 통제력의 정도, 다른 문화에 준비하는 정도, 언어적 능력, 경제적 능력 등과 같은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검증되었다(Kagen H & Cohen J 1990). 이 외에도 유학생들의 문화 적응에 따른 좌절감, 불안감, 소속감 등에 영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Lewthwaite M 1996).

2) 유학 목적

고등교육 영역의 유학은 직업, 사회적 위신, 전문지식의 생산이라는 점에서 유학 목적을 ① 사회적 지위의 상승 수단, ② 학문의 중심에서 배움의 추구, ③ 학벌 차별, 성차별, 한국대학문화의 비민주성으로부터의 탈출구, ④ 코스모폴리탄 엘리트가 되고 싶은 욕망으로 정리하고, 한국사회의 학력과 사회지위구조, 학문 수행에 있어서 미시적 상호작용과 개인의 심리적 차원에서 문제점을 제시하였다(Kim JY 2008).

유학 동기를 크게 대학과 학계의 글로벌 위계, 한국대학과 학문 생산의 구조, 한국 사회에서 학력과 사회 지위 구조, 미시적 상호작용과 개인의 심리적 차원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하여 이들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으로 유학 동기를 유발한다.

먼저 대학과 학계의 글로벌 위계 측면에서 볼 때 세계적인 대학 순위와 대학의 인프라, 교수진, 학술 문화 교류에서 글로벌 우위를 점하고 있다. 다음으로 한국 사회에서 학력과 사회지위 구조를 볼 때 미국에서 유학을 하려면 비교적 상위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하고, 유학을 준비하는 기간에도 적지 않은 비용이 수반된다. 따라서 유학생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역시 유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세 번째로 한국대학의 구조로서 학벌에 대한 선망과 교과과정에 따른 미국적 헤게모니가 미국 유학에 대한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매우 세부적이고 나타나기 어려운 면으로 개인의 심리적 차원이다.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일상에서 학력에 대한 차별을 경험하거나 개인의 학문적 열정 또는 정체성에 대한 의구심을 느낄 수 있다. 개인의 심리적 차원은 외부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고 학문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부분이지만 실제 유학 동기면에서는 매우 강한 동기 유발 요소가 되기도 한다.

2. 국내 조리 교육 환경

국내의 조리 교육 훈련 환경에 관한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조리에 관한 사회문화적인 인식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Kim TH 2002). 미국 조리대학(C.I.A)의 경우, 많은 사회단체로부터 기부금을 받거나 기증문화가 형성되어 학생들이 좋은 조건 속에서 학업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졸업을 하면서 향후 외식기업에 다시 공헌을 할 수 있는 인재가 된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학구열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조리 교육에서도 환경조성이 된다면 우수한 인력을 바탕으로 조리 교육도 발전할 수 있다. Kim TH와 Kim WM(2005)는 '효과적인 조리 실습 학습 모델에 관한 연구'에서 조리 교육의 단계와 과목당 실습 교육 시간을 충분히 배분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Kim TH(2002)은 국내 조리 교육의 단점으로 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실습 비용 중 많은 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므로 인해 높은 수준의 실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아울러 블록식 조리 실기 프로그램 운영을 제기한 바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J대학은 물론이고 세계적인 조리대학인 C대학의 경우 블록식 교육을 기반으로 실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국내 일부 대학과 비교해 보면 <Table 1>과 같다.

국내 조리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과 미국 조리대학을 비교해 보았을 때 등록금에서 환율의 차이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약 3~4배 정도의 차이로 미국 조리대학의 등록금이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실습실 수에서 국내 조리대학과 일부 차이는 있지만 특징은 조리 실습과 관련하여 레스토랑을 보유하고 있다. 전담 교수 측면에서 볼 때 미국 조

〈Table 1〉 Comparison of culinary schools in Korea and the US

Classification	Name of school	Terms	Start school	Type	Tuition/year	Students/class
Korea	HJ	2 terms	Mar/ spring term	Semester	₩640(ten thousand)/year	30~40
	W	2 terms	Mar/ spring term	Semi block	₩820(ten thousand)/year	20~24
USA	C	2 terms	Monthly	Full block	\$23,380/year	13~15
	J	4 terms	Sep, Nov, Mar	Semi block	\$23,034/year	15~20
Classification	Name of School	Laboratory	Faculty	Hours/credits	Practicum/theory	Restaurant
Korea	HJ	7	11	4/3	17/15	-
	W	16	18	6/3	16/20	3
USA	C	27	126	6/3	26/9	5
	J	31	73	6/3	15/10	6

The author arranged the list in 2008.

리대학의 교수가 월등하게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Kim TH(2002)는 미국 조리대학의 교육 장점으로 1교수 1과목 체계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과목별 전문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문제

본 연구 최근 조리과 관련된 직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는 물론이고 외국에서 조리를 배우려고 유학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서론에서 제시한 미국 내 한국 유학생 수가 세계 1위를 차지하는데 조리 유학생 역시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실제 조리를 배우려고 유학을 선택한 학생들이 현지에서 문화적 적응을 비롯하여 현재 유학 생활에 있어 본인이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조리 유학생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유학을 선택하게 되었는가?

둘째, 조리 유학생들은 자신의 유학 선택을 현재에도 만족하고 있는가?

셋째, 실제 조리 유학생들이 선택한 학교 교육 과정에 만족하고 있는가?

넷째, 유학 초기에 불편한 점과 현재 불편한 점에 차이점은 있는가?

2. 연구 방법과 범위

본 연구는 설문지를 사용하는 조사 연구 방법을 채택하였으며, 설문지는 주로 학생들과 면담 과정에서 배포한 다음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07년 9월부터 2008년 3월까지 9개월간에 걸쳐 산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공간적 범위는 로드아일랜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지의 내용으로는 인사말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련된 질문, 유학 목적에 관한 5개항의 질문, 유학 생활에 관한 4개항의 질문, 재학 중인 학교에 대한 6개항의 질문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리커트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유학을 시작했을 때 가장 불편하게 느꼈던 것과 현재 가장 불편하게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거, 교통, 언어, 인간관계, 문화적 차이, 기타로 정하고, 이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다.

3.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미국 로드아일랜드 주에 있는 J대학에 재학 중에 있는 80여 명의 한국인 유학생들이며,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학생들이다. 설문지는 현장에서 면담과 함께 작성하여 68부가 수거되었다. 연구 대

상지인 로드아일랜드 주는 미국에서 가장 작은 주이지만 초기 미국 동부 연안에 정착된 역사적인 주로서 교육과 문화중심 도시이다. 특히 명문으로 통하는 아이비리그에 속하는 브라운대학교(Brown University)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카톨릭 대학인 프로비던스대학(Providence College), 실용학문중심의 존슨앤 웨일즈(J&W University), 브리안트대학(Bryant University) 등이 있다.

로드아일랜드 J대학은 1914년 설립되었으며, 종합대학 내 조리학과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조리학과(Culinary Arts) 과정으로는 처음 2년 동안 전공 실습 45학점, 전공 외부 현장 실습 13.5학점, 직업 관련 8학점, 일반이론 32.5학점 총 99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2년 과정을 이수한 후 네 분야 즉, 제과제빵(Baking & Pastry Arts), 조리와 외식경영(Culinary Arts & Food Service Management), 음식마케팅(Food Marketing), 외식창업전공(Food Service Entrepreneurship)을 선택 할 수 있다. 교육 특징으로는 1년 11주 3학기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 4일 수업을 기본으로 하는 블록(Block)식 실습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블록제 교육은 집중적 기술이 필요한 실용학문 분야에서 많이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는 교육방식으로, 모듈식(Modules) 또는 샌드위치(Sandwich)식과 유사하게 교과목 단위가 모여서 하나의 교육과정을 이루어 나가는 형태를 말한다. 다만 모듈과 샌드위치교육 방식에 비하여 교과목 단위의 선·후 순위 과정이 보다 명확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기초과정, 중급과정, 고급과정에 있어 선

순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의 교육과정 신청이 일부 제한되게 된다.

J대학의 블록식 조리과정을 살펴보면 3학점 1블록은 9일을 기준으로 하고 1일 6시간 수업과 하루 오전과 오후 2번에 걸쳐 블록을 개설한다. 수업은 9일간 강도 높게 진행되는데, 3번의 퀴즈식 시험과 2번의 정식시험이 치러진다. 블록은 한 학기 동안 최대 5개가 개설되고, 학점에 따라 15일 또는 20일 수업의 블록형태도 있다.

블록교육은 Kim TH(2002)의 지적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장점으로는 집중 효과, 전문적 실습실 운영, 현장과 밀접한 교육, 다양한 경험적 교육 등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높은 고정자본, 높은 실습 비용, 교수 주당 수업 시간과 교수 확보를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과 동시에 학기제와는 다른 운영방식으로 인해 같은 대학 내에서도 독립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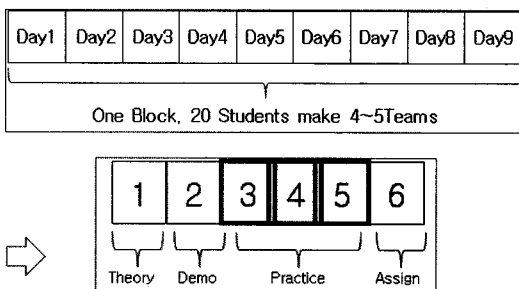
IV. 연구 결과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은 <Table 2>와 같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Variable	Level	n	%
Gender	Male	23	36.5
	Female	40	63.5
Age	20~25	42	66.7
	26~30	16	25.4
	31~35	4	6.3
	36~40	1	1.6
	Less than 1 year	18	28.6
Period of studying abroad	1~2 years	10	15.9
	2~3 years	10	15.9
	3~4 years	1	1.6
	Over 4 years	24	31.8
Type of residence	Dormitory	23	36.5
	Apartment	34	54.0
	Housing	5	7.9
	Others	1	1.6



<Fig. 1> The sample of a block system.

다. 성별은 여성(63.5%)이 남성(36.5%)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연령은 유학생인 만큼 20~25세(66.7%)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 기간으로는 1년 미만(28.6%)이 가장 많았고, 거주지 형태로는 학교 기숙사(36.5%)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조리 유학생들의 유학 목적

조사 대상 학생들의 유학 목적을 파악하기 위해서 5가지 질문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설문을 실시하였는데, 이에 대한 질문은 ① 전공을 보다 더

깊이 있게 배우고 싶어서, ②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③ 해외 취업을 하기 위해서, ④ 한국 내 전공과 관련하여 좋은 학교가 없어서, ⑤ 부모님 또는 가족의 권유 또는 이민 등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인해서로 각 항목별 중복 응답을 허락하였으며, 항목 간 척도 차이를 두었다.

분석 결과로 볼 때 유학생 대부분이 자신의 전공을 보다 깊이 있게 배우기 위해서(66.7%)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와 함께 언어 즉, 영어 능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도(47.6%) 나타났다. 반면 취업은 유보적인 응답을 보였는데, 미국 내 상황

〈Table 3〉 The purpose of study abroad

Questions	Likert scale	n	%	Remark
I decided to study abroad for studying my major in depth.	Strongly agree	23	36.5	
	Agree	19	30.2	
	Undecided	9	14.3	
	Disagree	6	9.5	
	Strongly disagree	5	7.9	
I decided to study abroad to improve my English skills.	Strongly agree	20	31.7	
	Agree	17	27.0	
	Undecided	13	20.6	
	Disagree	9	14.3	
	Strongly disagree	3	4.8	
I decided to study abroad to get a job overseas.	Strongly agree	12	19.0	
	Agree	17	27.0	
	Undecided	20	31.7	
	Disagree	6	9.5	
	Strongly disagree	6	9.5	
I couldn't find a good school for my major in Korea.	Strongly agree	12	19.0	
	Agree	10	15.9	
	Undecided	9	14.3	
	Disagree	17	27.0	
	Strongly disagree	14	22.2	
Parents or other family members suggest studying abroad.	Strongly agree	8	12.7	
	Agree	9	14.3	
	Undecided	5	7.9	
	Disagree	12	19.0	
	Strongly disagree	26	41.3	

*duplicated answer.

을 고려해 볼 때 외국인 취업이 매우 어렵고 학교 졸업 후에 1년 동안의 인턴 생활에서 스폰서를 찾지 못하면 귀국해야 하는 사정을 학생들은 이미 감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한국 내 조리전공학교가 없어서 유학을 결정했다’의 질문에서는 그렇지 않다(49.2%)라는 의견이 절반 가까이로 볼 때 국내 조리 관련 교육 기관이 없어서 유학을 선택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3. 조리 유학생들의 만족도

Park SH(2009)의 유학생 만족도 연구에서 대학

의 명성보다 전공 또는 적성에 따라 유학생 만족도는 다르게 나타난 것을 볼 때 조리 유학생들의 만족도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자기만족도 ① 나는 유학을 매우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② 나의 유학 생활은 내 인생에 커다란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③ 내가 생각하는 유학 생활은 매우 힘들고 어렵다. ④ 나는 현재 유학 생활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4문항과 학과 만족도 ① 현재 공부하고 있는 학과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습니까? 1문항을 토대로 유학 생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Table 4> Satisfaction with studying abroad

Questions	Likert scale	n	%	Remark
I think it was wise to have decided to study abroad.	Strongly agree	26	41.3	
	Agree	26	41.3	
	Undecided	10	15.9	
	Disagree	0	0.0	
	Strongly disagree	0	0.0	
Studying abroad will help shape my future.	Strongly agree	34	54.0	
	Agree	24	38.1	
	Undecided	14	6.3	
	Disagree	0	0.0	
	Strongly disagree	0	0.0	
I think studying abroad is very hard.	Strongly agree	5	7.9	
	Agree	17	27.0	
	Undecided	19	30.2	
	Disagree	16	25.4	
	Strongly disagree	4	6.3	
I am content with my current life studying abroad.	Strongly agree	12	19.0	
	Agree	36	57.1	
	Undecided	10	15.9	
	Disagree	1	1.6	
	Strongly disagree	2	3.2	
How much are you satisfied with the major you study now?	Strongly agree	14	22.2	
	Agree	38	60.3	
	Undecided	8	12.7	
	Disagree	1	1.6	
	Strongly disagree	2	3.2	

*duplicated answer.

조리 유학을 선택한 학생들이 자신이 유학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현명한 선택을 했다는 긍정적인 답변(82.6%)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신의 유학 생활이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미래 생활에 커다란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 역시 92.1%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유학 생활이 미래 자신의 경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유학 생활 만족도에서도 76.1%로 대부분 현재 유학 생활을 만족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언급한 박성현(2009)의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그러나 막연하게 유학 생활이 어려울 것이라는 생

각과는 달리 34.7%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이 유학 생활이 힘들고 어렵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조리대학 교육 만족도

유학에 있어서 대학 교육에 만족도는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된다. 2009년 한국일보 벤쿠버 지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만족도 조사에서 벤쿠버 지역의 교육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90% 이상의 유학생들 벤쿠버 주의 '교육의 질'을, 71% 이상은 '교육 만족도'를, 70%는 '우수한 교사진'을 벤쿠버 교육의 장점으로 꼽았다. 이들

<Table 5> Satisfaction with education quality

Questions	Likert scale	n	%	Remark
I am satisfied with the practical subjects of my university.	Strongly agree	12	19.0	
	Agree	27	42.9	
	Undecided	19	30.2	
	Disagree	1	1.6	
	Strongly disagree	1	1.6	
I am satisfied with theoretical subjects of my university.	Strongly agree	11	17.5	
	Agree	27	42.9	
	Undecided	18	28.6	
	Disagree	5	7.9	
	Strongly disagree	1	1.6	
I am satisfied with the facilities of my university.	Strongly agree	6	9.5	
	Agree	34	54.0	
	Undecided	16	25.4	
	Disagree	5	7.9	
	Strongly disagree	0	0.0	
I am satisfied with the International affair service quality of my university.	Strongly agree	8	12.7	
	Agree	22	34.9	
	Undecided	19	30.2	
	Disagree	9	14.3	
	Strongly disagree	0	0.0	
I am satisfied with the environment around my university.	Strongly agree	8	12.7	
	Agree	18	28.6	
	Undecided	24	38.1	
	Disagree	9	14.3	
	Strongly disagree	4	6.3	

*duplicated answer.

응답자 중 2/3 이상은 벤쿠버 주의 교육시스템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추천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볼 때 교육의 질은 곧 학교의 홍보와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조리대학은 미국 내에서도 대부분 직업대학(Community College) 또는 전문대학으로 되어 있으며, 4년 정규 대학은 그렇게 흔하지 않다. 본 질문은 조리대학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유학생들이 학교의 시설이나 교육과정, 그리고 유학을 담당하는 학교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동시에 파악하기 위한 내용들이다. 질문의 형태로는 ① 현재 재학 중인 대학의 실습수업에 대한 만족도, ② 재학 중인 대학의 전공 이론 과목에 대한 만족도, ③ 교육 시설에 대한 만족도, ④ 유학생 행정 담당자의 대응 태도 및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⑤ 학교 주변 환경에 대한 만족도로 구성되어 있다.

실습 과목과 이론 과목에 대한 만족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61.9%, 60.4%), 학교 시설에서는 약간 높은(63.5%)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유학생 담당자의 대응 태도와 학교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앞선 3개의 항목과 달리 낮은(47.6%, 41.5%)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학교 환경에서 매우 좋지 않다가 많지는 않지만 6.3%를 보인 것은 연구 대상인 J대학 캠퍼스 중 조리대학이 위치한 곳이 도심을 벗어난 슬럼가와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소수 의견이지만 실습 과목과 이론 과목에서 나타난 불만족 사항을 살펴보면 교내 실습의 경우 텀별로 이루어지므로 개인적으로 다양한 실습을 하기 어려움과 교외 현장 실습에서 학교에서 지정된 현장 실습 장소 선택의 한계성을 불편사항으로 제시하였다. 이론 과목 부분에서는 교과목이 타 단과 대학과 공통으로 개설되므로 시간 선정의 문제와 역시 언어 부족으로 인해 이해도의 문제를 꼽았다.

5. 유학 생활 중 불편 요인 조사

일반적으로 유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어적 문제를 생각한다(Lee SY 2007). Lee SY(2007)의 연구에서 유학을 하면서 준비가 부족

했다고 느낀 부분이 응답자 281명 중 44.3%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다는 것을 볼 때 현지에서 불편한 정도를 수치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언어 외에 다른 요인으로 인해 나타나는 불편함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유학은 언어 또는 전문적인 지식 습득 외에 다른 문화를 접하므로 다양한 경험을 하는데 커다란 의미가 있다. 하지만 극심한 문화 격차가 경우에 따라서는 유학 생활에 불편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결국 초기 설정한 유학 목적을 달성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학 초기에 불편한 요인과 현재 불편한 요인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기에 불편한 요인으로 언어(60.3%)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 불편한 요인으로 인간관계와 함께 교통의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문화적 차이 부분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임으로서 초기 언어적 문제에 가려 잘 보이지 않던 문화적 차이에 대한 불편한 점을 차츰 느끼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리를 전공하는 유학생들의 경우에서 초기 언어 적응 문제가 가장 높은 장애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언어 문제는 일부 해소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지만, 언어에 대한 불

<Table 6> Inconvenience while studying overseas

Period	Factors	n	%
Beginning	Residence	6	9.5
	Transportation	7	11.1
	Language	38	60.3
	Relationship	7	11.1
	Gap of culture	3	4.8
	Others	2	3.2
Present	Residence	8	12.7
	Transportation	12	19.0
	Language	18	28.6
	Relationship	14	22.2
	Gap of culture	5	7.9
	Others	6	9.5

편함은 일부 지속적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완전한 해결은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일정 기간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

V. 결론과 논의

유학은 기술이나 문화 또는 시스템 등이 다르거나 앞선 나라들로부터 경험을 축적하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매우 긍정적인 기회가 되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개인적으로나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이 보다 나은 교육 환경에서 학습을 함으로써 자녀의 미래에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는 노력의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국내 교육 환경 비교, 유학 비용, 유학 후 방향, 목적 등을 고려한 후 실제 유학이 자신의 경력 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본 연구에 대한 고찰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보다 그 지역과 조리 유학이라고 하는 범위를 좁혀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유학 목적(Kim HS · Choi YS 2005; Kim HK 2004; Song SH 2001)에서 외국어 습득, 선진국의 우수한 교육 체계와 문화 체험, 국내 열악한 교육 환경, 지나친 학벌 선호 경향 때문에 유학을 선택한다는 것과는 일부 일치하는 전공을 보다 깊이 있게 배우기 위함,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유학을 선택하는 것은 선행 연구와 일치하나, 해외 취업을 위해서 유학을 선택, 한국 내 전공과 관련하여 배울만한 교육 시설 부족, 즉 국내 열악한 교육 환경 때문에 유학을 [Strongly Agree 12(19.0%), Agree 17(27.0%), Undecided 20(31.7%), Disagree 6(9.5%), Strongly Disagree 6(9.5%)] 선택하는 이유를 보았을 때 46%로 10명 중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유효응답을 하였으므로 이는 국내 조리 관련 전공을 배울 수 있는 학교의 교육시설이나 환경이 좋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조리 관련 교육 기관은 시설, 프로그램, 교육 환경을 개선하여 이로

인해서 유학을 하는 학생들이 국내에서도 좋은 환경을 제공하여 국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어서 유학하고 있는 학교의 이론교육과 학교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 조사 대상의 대학이 블록식 교육체계를 기본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Kim TH(2002)가 제시한 블록식 교육시스템을 조리전공 교육에 도입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조리 실기교육의 대부분이 학기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조리 교육에 있어서 효과적인 실습실과 실습교육, 식재료의 사용 등 집중적 수업에 한계가 있다. 물론 블록식 교육에 따른 시설의 증가와 전문교수의 확보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교육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의 대학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2003년 31.3명, 2004년 29.9명, 2005년 28.2명으로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 OECD 회원국 비교에서는 2005년 기준 미국 15.8명, 영국 17.8명, 독일 12.7명과는 거리가 있으므로 앞서 제시한 비교에서 많은 등록금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유학을 선택하는 이유와 함께 국내 조리 교육 기관의 학교의 시설 또는 교수 확보 방향으로서 고려해 보아야 할 부분이다. Kim JY(2008)은 미국 유학생들이 미국대학이 교수의 수와 질, 장학금, 행정 지원, 시스템의 우수성에서 한국대학과 비교에서 월등하게 느끼고 있으므로 대학의 조직적 개혁은 필수라고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유학 생활에서 불편 요인을 유학을 시작할 때와 현재를 나누어 비교한 결과, 요인에 대한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예상된 바와 같이 초기 불편사항으로는 언어가 가장 높게(60.3%) 나타난 것은 유학 생활에서 언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 지도에서 언어 준비는 필수 요소가 되어야 한다. 다만 흥미로운 것은 초기 인간관계(11.1%)에서 현재 인간관계의 불편(22.2%)한 점으로 초기보다 배 이상 증가한 것은 유학 생활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관계의 문제점이 발생

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조리 유학 지도에서 언어의 중요성과 함께 향후 인간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교육도 뒤따라야 한다. 설문조사와 함께 면담 결과에서도 유학 초기에는 한국 유학생간 같은 처지를 이해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으로 인해 친밀감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쟁상대로서 인식하거나 이성문제 등으로 인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볼 때 로드아일랜드 지역 조리 유학생들이 미국 조리 교육에 대해 비교적 만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Table 3>에서 나타난 유학 목적에서 자신의 전공과 영어 실력 향상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유학 기간이 길어지면서 인간적인 관계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는 극복해야 할 과제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 교육에 최소 3배 이상의 학비와 함께 생활비를 지불해야 한다. 또한, 최근 미국의 경기 악화로 인해 대학을 졸업한 후에 미국 내 취업은 5%에 불과하고 나머지 95%는 국내로 돌아오고 있으며, 국내 취업에 있어서도 단순하게 유학을 한 것으로만 취업이 보장되기는 어렵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조리 유학이 보다 좋은 조리 교육 환경에서의 수학과 언어를 향상시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더불어 자신의 전공 분야에 경험과 능력을 쌓을 수 있는 계획적 조리 유학이 필요하다.

2. 연구의 의의와 한계

본 연구는 로드아일랜드라는 지역에 조리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유학 생활 만족도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얻었다. 연구의 의의로 볼 때 2009년 통계에서 보듯이 미국 내 최대 유학생 국가가 한국이지만 유학생들의 전공별로 유학의 목적이나 만족도를 조사한 연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시점에서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조리를 전공으로 유학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조사하였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본다. 본 결과를 바탕으로 조리 교육 기관은 물론이고, 조리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 기관은 유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학부모와 학생들에게는 유학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미국의 여러 주 중에서 로드아일랜드 중에 한정되었다는 점과 비용과 시간상의 제약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조리를 전공으로 유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다만 본 연구를 시작으로 계속하여 조리과 관련된 유학생들의 욕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끝으로 본 연구가 조리 교육 기관과 조리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한글초록

본 연구는 미국 로드아일랜드 주에 거주하는 조리 유학생들의 생활과 유학 만족도에 대한 기초 조사이다. 조리 유학생들의 유학 만족도를 파악한 것은 조리 유학을 준비하거나 계획을 하는 학생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로드아일랜드 현지에서 2007년 9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로드아일랜드 조리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총 68부를 수집하였다. 설문은 리커트 척도를 기본적으로 사용하였다. 조사 결과 조리 유학생들은 자신의 전공을 보다 심도 있게 배우기 위해 유학을 선택한 것이 높게 나타났다. 시설 면에서도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유학 초기에는 언어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후에는 관계문제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유학을 준비할 때는 언어 준비는 물론이고, 인간관계에 대한 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이나 특히 부모들과 유학을 지도하는 교사들의 경우 언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훈련에 관심을 가지고 유학을

준비하거나 유학을 지도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태형 (2002). 블록식(Block) 교육의 도입과 운영방안 관한 연구(조리 관련학과 위주로). 한국조리학회 2002년도 정기학계정기학술세미나, 순천대학교, 5-17.
- 박성현 (2009.11). 국내외고·민사고 해외유학 11년 심층진단: 대학 명성보다 전공·적성 따라 간 유학생이 만족도 높았다. *뉴스위크한국판* 19(43):110-120.
- 안정하 (2006). 청소년 인터넷 문화의 문제점과 교육적인 지도 방안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11-22, 서울.
- 중앙일보 (2009). “미국 유학생 11만 한국이 3년째 1위”, 2월 4일.
- 한국일보 (2009). “BC주 유학생 만족도 높다”, 7월 28일.
- An BC (1996). Study abroad at early age among Koreans; Issues and problems: Northern California. *Res Institute Korean Studies* 4:423-468.
- Cho HY (2007). A study on academic performance and adjustment of youths studying abroad: A case of Korean youths in a small town in the U.S.. *Korean Soc Cultural Anthropology* 40(2): 203-245.
- Choi JY (1997). Effect on life satisfaction by sex and marital status, and tow way anova with age and length of stayness covariance. *J Social Welfare* 3(1):73-92.
- Fugita S · O'Brien D (1986). Structural assimilation, ethnic group membership, and political participation among Japanese Americans: A research note. *Social Forces* 63(4):986-995.
- Gao G · Gudykunst W (1990). Uncertainty, anxiety, and adaptation. *International J Intercultural Relations* 14(3):301-317.
- Han JS · Ki YH · Kang YW · Park HS (2002). Developments of the guidance for Korean students studying abroad. *Korea Youth Res Assoc* 9(1): 199-220.
- Kagan H · Cohen J (1990). Cultural adjustment of international students. *Psychological Sci* 1(2): 133-137.
- Kim TH · Kim WM (2005). A study on the learning model for efficient culinary practice. *Korean J Culinary Res* 11(1):1-17.
- Kim JM (2008). In pursuit of global cultural capital. *Korean Sociological Assoc* 42(6):68-105.
- Son JJ (2005). Sociological analysis on the phenomenon of Korean students studying abroad. *Res Guide Education* 15(2):95-120.
- Lee HG · Nam HJ (2003). A study of Korean students' accultua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foreign countries- Korean students studying in the US.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10(4):121-142.
- Lewthwaite M (2004) A study of international students' perspectives on cross-cultural adaptation. *International J Advancement Counseling* 19(2): 167-185.
- Locke D (1998). Increasing Multicultural Understanding: A Comprehensive Model. Newbury Park, Sage Pub, 21, CA.
- Mallinckrodt B · Leong FTL (1992). Social support in academic programs and family environments sex differences and role conflicts for graduate students. *J Counseling & Development* 70(July/August):716-723.

2010년 3월 9일 접수
 2010년 3월 25일 1차 논문수정
 2010년 6월 28일 2차 논문수정
 2010년 7월 15일 3차 논문수정
 2010년 9월 2일 게재확정